

“희망 잃지 말고, 역경 이겨내라”

총무원장 자승스님, 투병 외국인노동자 숙소 방문 ‘위로’

국적 취득 도움 주기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취임 100일 이후 첫 행보로 투병 중인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방문해 위로했다. 이번 위로 방문은 오는 14일 설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된 이웃들을 격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8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사는 네팔 출신 노동자 바하두르(40)씨 자택을 직접 찾아 위로하고 금일봉을 전했다. 한국에서 18년째 살고 있는 바하두르씨는 심근경색으로 오랫동안 투병하고 있으며, 가정 형편이 어려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가의 반지하 방에 살고 있는 바하두르씨를 방문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어려운 여건이지만 희망을 잃지 말고, 역경을 이겨내라”고 격려했다. 이에 바하두르씨는 “큰스님께서 멀리까지 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면서 “용기를 잃지 않고 열심히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국인 부인과 결혼해 두 자녀를 두고 있음에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는 고충을 들은 총무원장 스님은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 도움을 주겠다”면서 배석한 총무원 직원에게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 보고하도록 했다. 총무원장 스님의 위로 방문에 배석한 총무원 사회부장 혜경스님과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대오스님도 바하두르씨에게 “힘내라”면서 손을 잡고 격려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지난해 12월 10일 수원 서호노인복지관을 찾아 노인들을 위로했으며, 같은 날 수원 성빈센트병원에 입원해 투병 중인 ‘직지 대모(代母)’ 박병선 박사를 위로 방문한 바 있다. 총무원장 스님은 매달 1~2차례 어려운 이웃을 직접 찾아 위로하고 격려할 예정이다.

인천=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총무원장 자승스님(왼쪽)이 지난 8일 투병 중인 외국인 노동자 바하두르씨를 찾아 위로했다.

“병원 못가는 이들에게 큰 힘”

조계종 아이티 의료봉사단 진료 시작
하루 300여명...중상자는 큰병원 이송

조계종 아이티 긴급구호 의료봉사단(단장 묘장스님, 조계종 총무원 사회국장이) 현지시각으로 지난 5일 수도 포르토프랭스 인근 뽀넬 지역에서 첫 의료 봉사를 시작했다. 의료봉사단의 진료 소식이 전해진 봉사 현장에는 진료를 채 시작하기도 전에 수많은 주민들이 모여들었다. 접수 시작과 동시에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봉사단을 찾아와 접수대는 북새통을 이뤘다.

지진이 발생한지 한 달이 가까워진 데다 진료를 펼치는 뽀넬 지역은

지진의 직접적인 피해를 겪지 않았기 때문에, 진료소를 찾은 환자들 가운데 생명이 위독한 환자들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곳은 빈민가이면서 위험지역이어서 다른 의료진단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다.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외상을 가진 환자들 중 중증에 이르는 경우가 많았다.

진료 결과, 이곳 지역 주민들은 지금까지 거의 병원을 찾은 경험이 없는 이들이 대다수였다. 아픈 곳이 있더라도 정확한 치료보다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민간요법으로 치료하는 일이 대부분이었다. 오히려 염증이 발생해 상처를 키우는 경우가 많았다. 가벼운 찰과상을 입은 환자들은 상처를 소독하는 선에서 대부분 치료가 끝이 났다. 그러나 생각보다 상처가 심각한 환자들은 치료하지 못한 채 응급조치를 취하고 인근 큰 병원으로 이송해 봉사단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의료봉사단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다. 5일에만 외과, 소아과, 성인 등으로 나눠 총 273건의 진료를 실시했으며, 현지시각으로 5일부터 9일까지 약 1500여 명의 환자들을 진료소를 찾은 전망이다.

봉사단의 진료는 일요일인 7일에도 쉽 게 이어 계속됐다. 휴일이라 환자들이 적을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많은 이들이 진료소를 찾았다.

한편 단장 묘장스님은 포르토프랭스 유엔본부에 찾아 지진 피해 현황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11만2405명이 사망했으며, 부상자는 총 19만659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아이티 정부는 총 21만여 명이 지진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으며, 집계되지 않은 사망자까지 포함된다면 전체 사망자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아이티돕기 성금 명단 3면 · 관련 기사 9면
아이티 포르토프랭스=엄태규 기자

“사회 역사 부응하는 수행자” “초심은 그대로 가져갑시다”

출가자 소리엔테이션...제1차 행자입문교육 현장

이제 막 출가를 결행한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서로의 사연과 포부를 나누며 각자 발심(發心)을 다진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승스님)이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공주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실시한 제1차 행자입문교육, 연초에 5단계로 확대 개편한 기초교육과정에

의거해 새로 마련됐다. 종단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소속감과 애종심을 일깨우고 출가의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프로그램. 세간의 오리엔테이션을 떠올리면 이해가 쉽다. 행자등록 2개월 이내의 남행자 16명 여행자 10명 등 총 26명의 행자가 참여했다.

5일 입재식에 이어 진행된 ‘한영과 만남의 장’ 교육국장 재경스님이 행자들을 동글게 둘러앉히고 편안한 담소를 유도한다. 한 명씩 일어나 출가 동기와 향후 계획을 밝히는 자기소개 시간. 오리엔테이션의 백미다. 사람마다 성정과 처지가 다른 만큼 불문(佛門)에 귀의한 이유도 가지각색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싶어서,’ ‘하던 사업이 쏠딱 망해 오갈 데가 없어서,’ ‘문득 돌아보니 5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났는데 가지고 갈 게 아무 것도 없다는 사실에 충격 받아서,’ ‘교회 천지인 고향 목포에 잘 한 채 가고 싶어서,’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궁극해서,’ ‘평소 달마대사를 형님으로 모셔왔다,’ ‘반생 이



‘한국불교의 오늘과 내일’ 강의를 경청하고 있는 행자들.

5단계로 확대 개편 후 첫 시행
조계종의 모든 것 프레젠테이션
환영과 만남... ‘특별한 수행도량’

로 살아가겠다는 초심만은 그대로 가져갑시다.” 이번엔 ‘한국불교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한 강의. 종헌과 종법 그리고 중앙종무기관 조직도까지, 조계종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프레젠테이션이다. ‘호계원은 세속의 법원을 말합니다. 승가도 사람 사는 곳이니 잘못을 저지르거나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이고, 호계원은 이를 합리적으로 징계하고 조정하는 기관입니다. 중앙총회는 ... 국회입니다. 국회.’ 행자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연수국장 광전스님의 설명을 듣는다. 배우겠다는 눈빛. 앞으로 자신이 몸담아야 할 곳이니 그럴 만도 하다. 물론 휴대전화 통화가 금지되고 물가집을 최대한 움츠려야 하는 청규가 엄존한다. 그래도 교육일정은 성기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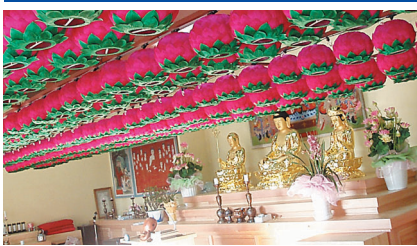
여유로운 편이다. 사찰의 고된 일상에 시달리는 행자들에게 막간의 휴식을 선사한다는 온도도 깔려있기 때문이다. 행자들의 얼굴에서 ‘훈련병’의 흔적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입문교육은 행자들의 발심과 원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일선 사찰에 행자들을 위한 교육체계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니, 교육원이 초반부터 직접 챙기겠다는 것이다. 교육원장 현승스님은 입재식에서 행자들의 손목에 일일이 108염주를 채워주며 특별한 관심을 나타냈다. “여러분들을 사회와 역사에 부응하는 수행자로 양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교육원장 스님은 “행자들의 신심을 확립하고 출가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입문교육을 신설했다”며 “종단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로 이들을 참다운 수행자로 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주=장영섭 기자 tuel@ibulgyo.com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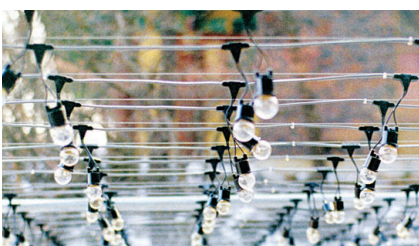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여래사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속 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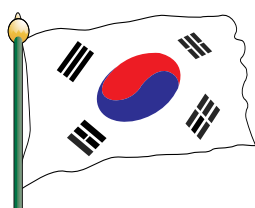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용학사 극락전 영구위패



‘동해 독도는 한국 땅’

아름다운 등

※ 주름등 · 중등 주문 받습니다.(사찰명 인쇄)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오색공단등



영가등



중등



육바라밀 만월등(육바라밀 주름등)



팔각봉축집등



중등



중등



중등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생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